

분과발표\_사회복지 1

##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sup>60)</sup> : 필요성, 근거 그리고 방법

강상우 (목사·고구려대학교 겸임교수)

### I. 들어가는 말

기독교연구자라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연구자 자신의 전공분야에 있어서도 믿음의 영역에서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現) 주류학문이 신앙의 영역을 배제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다행인 것은 오늘날 ‘통합, 통섭, 융합’의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통합과 통섭을 말하는 이들 연구자들의 기저(基底)에는 연구자 자신들의 세계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주제인 신앙과 사회복지의 통합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마다 게이이치로(嶋田啓一郎)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본연구자에게 강한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에게 도전을 준 시다마가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사회복지’ 또는 ‘기독교사회사업’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가능성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사회의 객관적 사실인 기독교사회복지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모순에 대응하는 하나의 사회복지 활동일 뿐이고, ‘기독교사회복지’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은 그 담당자가 기독교 신자일 뿐이며, ‘기독교사회복지학’이라는 특정의 학문 영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는 연구자가 많다. (……) 사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연결고리에는 해결하기 곤란한 의문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어떠한 접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기독교사회복지학회는 존재의 발판을 확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회의 존속보다도 더욱 중요한 기독교 신자로서 사회실천 자체가 이론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嶋田啓一郎, 2000: 293)

기독교와 사회복지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시마다(嶋田)의 말을 빌리면, “기독교와 사회복지 사이의 강한 연결고리를 찾지 않는 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약한 이론적 토대에 서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정체성에 대하여 위협<sup>61)</sup>에 노출될 수

60) 본 논문은 내용에 있어서 강상우(2011a, 2011b, 2011c, 2012a, 2012b)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1) “오늘날 기독교 대학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은 기독교 대학의 구성원들의 삶과 그들의 학문이 통합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진정한 인간의 인간성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이다.”(김기숙, 2003: 6);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의 미(未)확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선 김은수(2002: 64) 참조.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土臺) 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대해서 논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복지와 기독교의 통합의 문제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신앙과 학문의 관계의 역사가 통합, 분리, 재통합의 역사로 이행되는 것처럼 사회복지와 기독교(종교)의 통합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도 주류 학문의 영향인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주의에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신앙과 사회복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초기 역사를 보면 중세의 구호적인 자선에서부터 근대의 전문성을 띠기 시작한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영적 사명감과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이현아, 2002: 184 재인용)[초기 통합의 관계].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플렉스너(Flexner)가 ‘사회사업은 하나의 전문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회의적인 대답을 던진 이후 사회복지학은 전문성의 정립이라는 명제 아래 영성, 종교성, 신학과 초자연성 등을 실천영역에서 과감히 제외시켜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은 학문의 정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이는 주류학문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박종삼, 2003: 12)[분리의 관계]. 그 이후로 실증주의적 과학주의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주류 학문의 대한 저항) 등으로 인하여 21세기 사회복지의 다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종교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 종교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재통합의 관계에 대한 추구].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 종교를 다루는 것에 대한 논쟁이 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미국사회사업계에서 발간하는 『사회사업백과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의 제18판(1987)에는 ‘교회사회사업’(Church Social Work)이라는 항목이 없었으나, 제19판(1995)에는 ‘교회사회사업’이라는 제목 하에 10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박종삼·유수현·노혜련·배임호·박태영·허준수·김규수·김인·노혁·손광훈·송성자·이열실·전석균·정무성·정은·조휘일·김교성, 2004: 436)는 점은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신앙과 통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본고에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통합(統合)이란 개념은 단순한 혼합(mix)이 아닌, 더 건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 부분들을 함께 모으는 것으로 총체성(wholeness)을 의미(Mouw, 1999: 219)하는데, 내용면에서 통합은 ‘어떻게 통합’(how to integrate)할 것인가와 ‘무엇을 통합’(what to integrate)할 것인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구조 통합(structure integration)으로 불리고 후자는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으로 불리는데(김용태, 2006: 150 참조) 본 연구에서는 ‘구조 통합’ 즉 ‘어떻게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은 구체적으로 A·R·T Process(Assimilation, Refusal, and Transform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독교’는 문맥에 따라서는 ‘기독교세계관’과 상호 교환적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는 광의적 의미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사회사업’(Church social work)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사업(social work)과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강상우, 2011c 참조).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통합의 필요성: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은 왜 필요한가.

연구문제 2: 통합의 근거: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통합의 방법: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과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II. 기독교와 사회복지 통합의 필요성

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필요한가. 사회복지와 기독교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보다 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주류 사회복지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통합의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 1. 사회복지 환경 변화

오늘날 현대사회는 실직, 산재, 질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업사회의 구(舊)사회위험(old social risk)과는 달리 탈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맞벌이 가정의 노동과 가족생활 병행의 어려움, 서비스 경제의 확대, 노약자를 위한 요양과 보호 필요성의 증대 등 새로운 복지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신(新)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직면하고 있다(김윤태, 2010: 307-308).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과 같은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복지수요를 충당을 위해서 종교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사회복지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연결되어진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볼 때에 (a)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둔화(jobless growth, McJob 등) 경향, (b) 복지국가의 확장 및 성숙으로 인한 한계점 도달, (c) 인구의 고령화 추세, (d) 가족구조의 변화(예컨대,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증가, 이혼가구 비율의 증가, 노인가구주 가구의 증가 등)(구인회, 2006: 50-51 참조)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위기(危機)(박병현, 2007 참조)<sup>62)</sup> 또는 복지국가의 재편(再編)이라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의 민영화(民營化)의 확대로 연결되어지곤 한다. 민영화의 경우 적지 않게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빈익빈부익부 현상<sup>63)</sup>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sup>64)</sup>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증가시키고 복지사각지대(福祉死角

62)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지국가의 재편을 추진했으나, 스웨덴에서는 ‘위기’라는 용어보다 ‘조정국면(adjustment period)으로의 진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스웨덴에서는 사회복지의 대폭적인 축소를 내포한 ‘위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재편도 없었다.”(박병현, 2007: 248).

63)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압력에 편승하여 경제도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시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복지도 공익의 원리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재편(再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성재 편저, 2008: 59).

64) Donnison은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방법 중에서 “공공서비스의 폐지 내지 축소”는 복지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의 증가로 사회적 배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양정하, 2004: 285 재인용); “1980년대 보수당정부는 고용주와 중산층에게 공적 소득연계 노령연금 프로그램인 SERPS(state Earning-Related Pension Scheme)으로부터 탈퇴하여 민간기업 연금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제공함으로써 노령연금체계를 민영화하였다. 그 결과 공적 노령연금의 급여지

地帶)의 증가로 이어져 복지소외계층(福祉疎外階層)의 증가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복지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사회복지 등 종교사회복지의 참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떠오르게 한다.

민영화와 사회적 배제의 증가는 사회복지의 유턴(U-turn)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족이 가족성원의 복지를 책임졌다가 근대화를 겪으면서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변질하였다. 가족이 더는 그 짐을 질 수 없게 되자 국가가 이를 떠맡았다. 이제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하였고 그 부담을 시민사회와 나누려 하지만, 가족은 벌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결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그 마당이 바로 지역공동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동체 자체의 변질에 주목하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만나게 된다. ‘신공동체 운동’이라는 화두를 제기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음이다. 이 경우 공동체로 바로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다(김경동, 2007: 305)<sup>65)</sup>

복지욕구는 증대하였으나,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적, 물질 자원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국방 및 경제성장과 같은 항목에 비해서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라는 제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서구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민간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부문은 종교계이다(김미숙·홍석표·이만식·유장춘, 1999: 29).

제한된 복지에산과 복지수요 증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또는 기독교복지단체·기독교사회복지사 등)는 어떻게 사회복지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기독교세계관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사고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에 맞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기독교세계관)와 사회복지의 통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 2. 보다 완전한 인간 이해: 주류 사회복지에 대한 재고

일반사회복지학의 경우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더프만(R. Dorfma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급 책임은 감소한 반면에, 노인의 빈곤과 불평등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Esping-Andersen, Gallie, Hemerijck and Myles, 2006: 324-325, 234번 각주);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 시절의 재민영화는 몇 가지 사회적 위기를 가져왔는데, 의존적이고 노동기술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탈시설화함으로써 홈리스를 증가시켰다”(현외성, 2006: 151).

65)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향후 더욱 요구될 것이므로, 종교계는 점차적으로 복지공급 주체로서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김미숙, 홍석표, 이만식, 유장춘, 1999: 52); 김경동(2007: 305)은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공동체운동’(神共同體運動: Theommunity=Theos+Community)을 제시한다.

다른 분야들이 생물·의학적 혹은 심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임상사회사업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능과 그 관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임상사회사업은 사회학적 초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생활의 모든 측면들이 고려되는 전체주의적인 사정으로 초점이 확대되었다(Dorfman, 2004: 125).

더프만이 (임상)사회복지가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완전한 인간 이해에 대해서 여전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논리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대부분의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여전히 영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논리 실증주의적 지식은 계량(計量)적이고 객관(客觀)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은 도외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전인적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 측면을 포함한 전인적 이해가 필요하다. 한때 유명한 의사였다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고(故) 로이드-존스(the late D. M. Lloyd-Jones)도 오래 전부터 전인적 인간이해야 말로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임을 지적하였다.

진실로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의학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반드시 인간이란 실제로 누구인가 하는 전인적인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의미와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Lloyd-Jones, 2003: 28).

1) 먼저 PIE에서 W-PIE로의 확대(BPS Model에서 S-BPS Model로의 확대) 필요: 사회복지사들은 사람의 생물학적·지적·정서적·사회적·가족적·정신적·경제적·공동체적인 것 등 상호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전체로서의 인간’(Whole Person)에 대한 관심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인간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Sheafor and Horejsi, 2003: 9). 사회복지가 인간에 대해서 이처럼 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전술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내적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것은 일반사회복지학이 전인적 인간을 이야기하면서도 주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인간의 영적이고 종교적 존재임을 거부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의 차이점을 비교한 다음의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환경 속에 있는 인간’(PIE: Person in Environment)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일차적인 필요(need)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종교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차원을 가진다. 왜냐하면 일반사회복지가 개인의 가족 및 정치·사회·경제적인 환경에 관심을 두면서, 신체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욕구들에 대한 접근을 추구한다면, 종교사회복지사는 이와 더불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들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종교사회복지사는 일반사회복지 영역 속에 온전히 포함될 수는 없다(권경임, 2000: 50-51).

인간을 이해할 때에는 ‘환경 속에 있는 인간’(PIE)을 뛰어넘어 영적 측면을 포함하는 ‘환경 속에 있는 총체적 인간’(WPIE: Whole-PIE)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자 한다면 종교와 영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Canda and Furman, 2003: 37)<sup>66)</sup>

앞에서 기술(既述)한 PIE(환경 속에 있는 인간)에서 W-PIE(영적 측면을 포함한 환경 속에 있는 총체적 인간)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BPS Model에서 S-BPS Model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인간은 단지 신체적, 사회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 욕구와 충동의 복합체 이상의 것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각 측면마다 영적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몇 세기를 두고 종교단체들이 영적 욕구 표현의 매개체를 공급하려고 노력했으나 불행하게도 각 부분의 통합보다는 따로따로 분리시켜 보는 경향을 가져왔다. 인간의 영적 측면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면(面)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Brill, 1996: 24)는 지적처럼 현재 사회복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리·심리·사회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 또한 영적 측면을 제외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적 측면을 추가한 영적·생체·심리·사회적 모델(spiritual-bio-psycho-social model)이 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Bullis, 2002: 72 인용). 그렇기 때문에 BPS model에서 S-BPS model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결과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에 ‘영적 안녕’(靈的安寧)을 추가하는데 이는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도 물질적 신체의 밖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신익, 2007: 132). 건강을 이해할 때에도 “인간을 구성하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와 힘의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평형상태”(Greene, 2006: 213)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코넛(C. Cornett)은 사회복지의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에서 생물, 심리, 사회, 영적 모델로 시야를 확대함으로써 영적인 문제가 타당한 임상적 초점이 되며, 클라이언트의 강점, 약점 및 문제를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Canda, 2007: 24-25).

2) 의학(치료)적 모델에서 영적 모델로 확대 필요: (앞의 계속되는 지적처럼) 주류 사회복지학에서 사용하였던 중심 모델은 의학적 모델인데 이 또한 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는 의학적 모델에서 영적 모델로의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불리스(Ronlad K. Bullis)의 다음의 말은 치료(의학)적 모델과 영적 모델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치료는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체제의 부분을 치료하지만 영성은 개인의 가장 깊고 심오한 부분을 포함한 전신(全身)을 치료하려고 한다. 증상을 없애는 것은 의학적 모델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영성 사정과 개입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이상을 제공한다. 증상은 신체적, 정신적 부분을 말하는데 비해, 영성은 사람 전체를 말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말하는 영적 모델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려는 것이

66) 스펜서(Spencer, 1961: 161-170)는 사회복지 교과과정에 클라이언트의 영적, 종교적 관심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 개인적, 사회적 변화는 증상이 완화되는 이상의 것 즉 의식의 크나큰 변화를 말한다. 전통적 의미를 보면 이 변화는 '회개'로 알려진 것으로 회랍어 동사 '완전히 돌다'에서 근거한다. 클라이언트는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 즉 의식과 행위가 변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Bullis, 2002: 54).

다음 로이드-존스 목사의 진술은 의학적 치료 모델을 넘어서 영적 모델로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쉽게 무시해 버리지만 사실상 건강과 질병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범주 속에 나는 ‘신앙’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말하는 신앙이란 모든 종류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 전해가 옳다면, 그 어떤 종류의 신앙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Lloyd-Jones, 2003: 137). 주류 사회복지에서 사용하였던 의학 모델은 물질적 세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통한 신체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중심 목적이 된다. 그러나 영적 모델은 육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없애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영적 모델은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을 뛰어넘어 다양한 영적 도구들을 사용하게 된다(의학모델과 영적 모델의 차이점은 Bullis, 2002: 50 참조).

의학적 모델을 넘어 영적 모델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독의 문제의 해결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다.”(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고 한다(May, 2003: 238 각주). 중독이란 무엇인가. “영적으로 중독은 고질적인 형태의 우상숭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독의 대상은 우리의 거짓 신들(우상)이다. 우리는 사랑 대신에 이것들을 숭배하고 이것들에 정성을 기울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다. 중독은 그렇게 우리의 가장 깊고 진정한 욕구의 대상이며,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한다. 현대의 어느 영성 저술가가 일컬었듯이 중독(中毒)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사종교’(종교적 실재의 모조품)와도 같기” 때문이다(May, 2003: 26). 중독의 문제와 같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모델을 넘어서 영적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영적 모델에서의 ‘영성’은 일반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영성’의 개념과 구별되어야만 한다. 같은 영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 양자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필요: 문제(problem, desire, need) 등에 대해 접근할 때에도 주류 사회복지의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문제들 다시 말해 욕구라든가,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측면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하기 때문이다.

욕구(need)의 문제의 경우 오정수가 지적하였던 것처럼 일반사회복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적인 측면이 제외된다.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설이라든가, 이를 수정해서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한 엘러퍼(Alderfer)의 욕구이론의 경우 인간욕구의 이해를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찾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욕구는 일반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육적 욕구와 더불어 영적 욕구가 조화를 이루면서 강조되어야만 한다(오정수, 1991: 145-148).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욕구와 사회문제 중에서도, 가난과 고통의 예를 통해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의 문제에 대한 주류 사회복지 접근은 주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영혼의 필요’를 생각하는 가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필요로 하게 한다. 신약학자 리델보스(H. Ridderbos)는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그 의미를 ‘사회적인 차원과 종교-윤리적인 차원을 함께 포함하여 이해’하였다(김광열, 2003: 243 각주).<sup>67)</sup> 오정수(1991: 151)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해석은 개인주의적 관점, 문화주의적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을 포함한 구조주의적 관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 의한 해석은 기아, 억압, 박탈, 빈곤 등의 파괴적인 사회현상이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질병, 빈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타락을 가져와 죄와 악의 파괴적인 현실(기아, 억압, 박탈, 질병, 죽음)은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원리에 의한 사회복지의 과업은 경제와 문화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통의 문제의 경우 총체적 고통은 상이한 요소로 구성돼 있다.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영성적인 것이 그것이다. 고통은 전체 인격을 둘러싼다(Kenneth and Morgan, 2006: 205). 고통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특히 당혹하게 하는 것 중에 선천적무통증(先天的無痛症: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과 환상지통(幻想肢痛: phantom-limb pain)이 있는데 전자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팔이나 다리를 절단당한 사람들이 절단되어 실재하지 않는 신체 부분에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다(손봉호, 1995: 12).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고통의 원인이 다양할 만큼 고통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고통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통의 종류와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다는 점이다(손봉호, 1995: 108).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전인적 이해와 더불어 정신적, 영적, 육체적, 사회와 같은 다차원적인 고통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회문제의 경우에도, 사회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이 주장되고 있다. 사회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문제 가운데 영과 죄(spirit and sin)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은 사회복지사의 가치판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이효선, 2004: 152). 이는 사회복지사는 가치지향 학문이고, 사회복지사는 가치 판단자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먼저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과학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1930년대 이후 생활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로서의 지위를 누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잡한 선택의 문제라든가 분배의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과학은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다양한

67) “물질적인 빈곤과 영적인 빈곤은 종종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nyder, 2005: 338).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Reamer, 2005: 20).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making) 이론을 개발하여 실천현장에서 당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사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윤리적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의 예(例)다. “종교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가치논쟁에 있어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 현실적으로 종교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유대교 율법 혹은 성경의 가르침과 사회복지 교육, 낙태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NASW의 입장, 클라이언트의 성적인 악습과 교회의 가르침, 억압받는 집단의 시민권,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적 금지행위로 보는 행위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에 휩싸”(Ortiz, 2001: 2419)이게 되는 경우다. 어떤 윤리적 딜레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의 가치관(세계관)의 차이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독교복지기관이나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 “기독교 사회복지 윤리는 사회복지 윤리의 규범을 기독교에서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기독교 사회복지윤리를 기독교 윤리실천 행위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윤리의 규범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규범이 더 중요하게 요구 된다”(강춘근, 2005: 17). 같은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낙태·동성애·성 등)에는 일반사회복지사와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같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일반사회복지윤리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일반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의 습득(일반사회복지학이 가르치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물론이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야만 상반되는 가치(價値)의 경합(競合) 또는 충돌(衝突)의 경우에 기독교세계관에 맞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문제다.

### Ⅲ. 기독교와 사회복지 통합의 근거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근거는 무엇인가.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근거로 먼저 이론적 근거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그리고 실천적 근거로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찾고자 한다.

#### 1. 이론적 근거: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정체성(강상우, 2012b: 19-23; 2011c: 25-27)

기독교사회복지는 그 학문적 성격상 포괄적인 지식을 요한다. 주류 사회복지의 영적 지식인 영성과 신앙을 배제하지만 기독교사회복지의 신앙과 영성 같은 계량화할 수 없는 지식도 포함한다. 그런가하면 기독교사회복지의 일반사회복지나 다른 종교사회복지와 구별되는 개

념이라는 점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사회복지나 다른 종교사회복지와 비교할 때에 본질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세계관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기독교사회복지와 다른 종교사회복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이처럼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은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의 문제이며,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의 문제는 바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1) 포괄적 지식을 요하는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교회사회사업)의 정립을 위한 박종삼과 김기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종삼은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을 위해 종교사회학적 접근을 모색한다(박종삼, 1996: 7-24). 특히 박종삼은 힐러리(G. A. Hillery, Jr.)의 “진리의 유형”에 근거하여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힐러리는 인간이나 사물을 관찰하는 인식자와 인식의 대상을 두개의 큰 변수로 본다. 인식자의 인식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인식(認識)으로 구분되어 하위변수를 이루고, 인식의 대상인 실체는 형이상학적 실체와 형이하학적 실체로, 두 개의 하위변수가 된다. 이러한 객관, 주관, 형이상학, 형이하학의 네 개의 변수는 네 개의 독특한 진리의 유형, 곧 과학적 진리(형이하학+객관), 신학적 진리(형이상학+객관), 감각적 진리(형이하학+주관) 그리고 신비적 진리(형이상학+주관)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교회사회사업이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인간의 사회복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유형의 접근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이로써 종교와 과학의 상호가능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대에 따라서 단지 진리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이 더욱 강조되었던 때는 있었어도 항상 위의 네 가지의 진리의 유형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박종삼(1996: 16)은 “종교의 궁극적 해석의 틀은 힐러리의 진리의 유형에서 신학적(철학적) 진리, 신비적 진리의 틀을 갖고 과학적 진리와 감각적 진리의 한계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교회사회사업의 독특한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또한 박종삼(1987: 76)은 “힐러리의 네 유형의 진리는 네 개의 별개의 진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성을 네 개의 다른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종교와 과학은 적대적 관계 아니고 동일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두 개의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리는 그것이 과학적 인식방법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신학적 진리에서 온 것이든 어느 하나를 배제할 때에는 전체적이고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박종삼은 진리의 총체는 네 가지 유형의 진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총합하여 조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박종삼, 2003: 22).

이에 비해 김기원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의 근거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경험과학이나 비(非)경험과학의 어느 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특징을 겸비한 ‘최적(最適) 경험과학’(Optimizing Empirical Science)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통상적으로 과학은 크게 경험과학과 비(非)경험과학으로 나뉘고, 경험과학은 다시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특정 분야 학문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다. 이는 일부 학문의 경우 특징상, 종합과학적(綜合科學的: multi-disciplinary)이고, 학제간(學際間: inter-disciplinary)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들 학문 분야의 경우, 학문상, 의도한 목적을 최대한 가장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 분야가 이해와 분석을 위해 관련됨으로써 경험과학과 비(非)경험과학으로 분류되는 학문 분

아들을 체계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에는 경험 과학이나 비(非)경험과학의 어느 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특성을 지닌 제3의 학문 분야(The Third Disciplinary)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경험과학과 비(非)경험과학 양자의 특징을 겸비한 ‘최적 경험과학’에 속하게 된다(김기원, 2001a: 18-19; 2001b: 197-228).

앞에서 박종삼 박사와 김기원 교수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려는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진리의 포괄성’이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영성이나 신앙과 같은 계량화할 수 없는 지식을 제외시키는 논리 실증주의적 과학주의는 진리의 모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지식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사회복지는 주류 사회복지와 달리 포괄적인 진리를 요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학문 즉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에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신학적 지식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통합은 필수적이다.

## 2) 가치개입적인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학만이 지니는 구체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교회사회사업과 관련하여 박종삼 박사가 제시하고 있는 교회사회사업의 독특성 중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사회사업의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 일반 사회사업의 동기보다는 ‘신앙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신학적 사회사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원 교수도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 특성 중에서 주의해서 볼 것으로는 (1)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규범 지향적(規範指向的: normative orientation)이라는 점과 (2) 가치중립적(價值中立的: value-free)이라기보다는 가치개입적(價值介入的: value-judgment)인 학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가치 개입적’이라고 할 때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불변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김기원, 2001b: 205).

일반사회복지·종교사회복지·기독교사회복지를 상호 비교해 보면 앞에서 김기원 교수가 기독교사회복지가 절대불변의 가치의 개입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일반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반사회복지와 종교사회복지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사회복지도 일반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종교사회복지와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차이점은 단순한 실천방법론상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념과 정신적 세계관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즉 이들 제(諸)사회복지의 개념들은 언뜻 보아서 외관상 실천의 원리 등에는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복지개념들이 외관상으로 내보이고 있는 실천 원리들은 ‘사랑의 실천, 자선,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관상의 실천원리가 아닌 내부 중심 근저(根底)에 있는 사상과 세계관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의 경우 논리 실증주의적 가치에 토대를 둔 사회복지실천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 종교사회복지의 경우 그들 자신들의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교리(宗教的 敎理)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지실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는 종교사회복지의 하나로 분류되지만 일반사회복지나 종교사회복지와는 달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를 지닌다. 즉 기독교사회복지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성에 입각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이루어져만 한다.

## 2. 실천적 근거.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최무열, 2008 참조). 외국과 한국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양[영국·독일·미국 중심의]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역사가 기독교와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무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기원을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로마의 ‘호민관 제도’에서 찾는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에서 볼 때, 사회사업은 분명히 복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사역부터 복지 의도를 갖고 역사하셨으며, 인류의 행복과 안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지 의도는 출애굽을 중심으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국가를 재건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복지적인 삶을 누리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며, 가난한 자와 과부 등 그 시대의 역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일조 제도를 만드셨다. 또한 토지의 휴경제, 희년, 추수제도 등 여러 가지 경제제도는 가난한 이웃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였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동일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등등함을 이룩하려는 특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최무열, 2004: 49)<sup>68)</sup>

영국과 미국에서의 사회복지의 출발은 교회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사업 교수인 팀스(N. Timms)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현대 사회사업의 기원과 관한 질문은 자연스레 역사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질문은 전문 직업으로서 사회복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은 종종 사회사업이 기독교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박영호, 2001: 475 재인용). 일찍이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속에서 이웃사랑, 자선봉사, 정의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들은 전문직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Canda and Furman, 2003: 57-58) 이처럼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68) 최무열(2008: 342)은 “...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뿌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독교는 사회복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서, 그리고 사회복지의 역사를 진정으로 연구해 보지 않고도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사회복지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림: 사회복지의 발전형태와 과정] 최무열, 2004: 43 참조). 중요한 것은 서양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기독교적 가치들이 역사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사회복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노치준은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한다. (1) 선교초기 시대, (2) 일제시대[일제강점기] (3) 외원원조시대 (4) 자립준비시대 (5) 자립발전시대(노치준, 1999: 40-76)가 그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한국개신교회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전래와 함께 서양식 근대적 자선사업이 들어왔던 것이다. 기독교에 기반을 둔 육영(교육)사업, 의료사업, 구제사업과 같은 각종 민간사업들이 이에 해당된다(박영호, 2001: 488 참조).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들에 의한 신(新)교육은 국민들에게 일제 강점기하에서의 민족의식과 민권의식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결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교회가 계몽운동과 애국운동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사회운동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일제 식민통치기간 중에는 농촌 개발사업, 농민계몽사업들이 선교의 일환으로 전개 되었는데, 농사전문지, 농사학교, 농사강습회, 신용협동조합운동 등을 통하여 선교과제를 실천하였다(박영호, 2001: 491 참조).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의 사회복지활동은 외원의존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의 원조에 많이 의존을 하였다. 그 당시 외원기관은 대부분 기독교계통의 기관이었다. 사회복지의 교육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박영호, 2001: 495). 김종일(2006: 75)에 의하면 “1970년대에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동으로 크리스천 사회행동협의회를 결성하면서부터이다. 이 협의회는 역시 양쪽이 공동으로 연세대학교 안에 설립한 도시문제 연구소를 통해 사실상 한국 주민운동의 산실 노릇을 하였다”고 한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근거는 무엇인가. 기독교사회복지는 포괄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가치개입적인 학문이다. 즉 주류학문이 배척하는 형태의 지식인 비계량적이고 주관적인 지식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일반사회복지와 비교해서는 매우 가치개입적이다. 또 가치개입적인 다른 종교사회복지와 비교할 때에 본질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는 다른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되어야만 한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국이나 한국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을 추구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IV. 기독교와 사회복지 통합의 방법

그렇다면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독교세계관이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있어서 교량(橋梁)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더불어 더 나아가 기독교세계관이 통합에 있어서 필터링(A·R·T Process)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 1. 기독교세계관을 교량으로 한 기독교와 사회복지 통합(강상우,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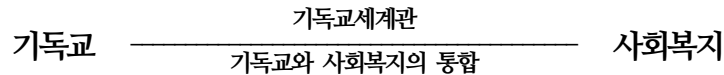
모든 학문에 ‘숨겨진 가치’가 존재하고, 또 ‘믿음의 틀’이 존재한다. 이는 모든 학문의 밑바닥에는 세계관이라고 불리는 신앙(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의 통합의 태도를 보면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자 자신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신앙에 기반(faith-based)을 둔 학문의 근저(根底)에 있는 세계관(연구자 자신의 세계관)과 기독교세계관(기독교연구자의 세계관)이 통합에 있어서 동일한 위치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을 추구하는 일반연구자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기독교연구자들의 경우 기독교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의 통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연구자들은 기독교세계관에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꾀하고 학문을 연구하게 된다. 반대로 비기독교연구자들은 비기독교연구자 자신의 세계관을 근거로 학문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비기독교연구자 자신의 세계관을 근거로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경(2001: 124)은 “기독교세계관의 원리는 학문의 원리와 신학의 원리를 통합한 원리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있어서도 통합의 원리는 기독교세계관이어야 한다. 즉 기독교세계관을 교량(橋梁)으로 하여 기독교와 사회복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있어서의 김성원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의 주장이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논의에 있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할 유익한 논의를 주기 때문이다. 김성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지신학도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도는 기독교 철학적인 기반과 조직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해야 견고한 실천적인 복지신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복지에 관한 신학은 필요한 것이고 이론적인 바탕으로 한 조직신학을 근거로 해서 발전해야 한다(김성원, 2002: 83)

위에서 김성원은 기독교 철학적인 기반과 조직신학적인 바탕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시도해야 견고한 실천적인 복지신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가 주장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하다. 그러나 만약 통합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이 아닌 (각 교단의) 조직신학에 근거한 접근을 시도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각 교파적 신학의 기반위에 기독교사회복지가 서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기독교적 정통(正統)이 아닌 각 교파적 전통(各 教派的 傳統)의 개입의 우려를 낳게 될 수도 있다. 결과론적으로 각 교단의 조직신학에 근거한 통합의 경우 기독교사회복지학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각 교파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사회복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기독교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교회와 교단들 간의 연합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있어서 통합의 근거는 조직신학이 아닌, 기독교세계관의 기반위에서 기독교와 사회복지학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본고에서 본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신학’(最小神學:

minimum theology)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며, 다만 주님의 가르침(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하게 따르자는 것임을 유의해 주셨으면 한다.

[그림 2: 기독교세계관을 교량으로 한 기독교와 사회복지 통합]



## 2.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여과작용: A·T·R Process(강상우, 2011b)

문영빈(2003: 137-153)은 자신의 논문 “신앙과 학문의 연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앙과 학문의 연계는 신학과 철학의 매개(媒介)를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기 위하여 신학적 작업과 철학적 사고를 걸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 통합을 하고자 하는 학문의 저변에 깔린 학문적 전제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통합을 추구하는 학문의 밑바탕에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영빈, 2003: 145). 기독교세계관은 통합을 추구하는 학문의 근저에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필터링과정을 거치는데 구체적으로 A·R·T Process(수용·거절·변혁의 과정)를 한다. 즉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이 기독교세계관과 일치할 때에는 학문의 내용에 대해서 수용(A: Assimilation)하게 되지만,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과 대치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R: Refusal)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에는 통합하고자 하는 학문의 내용을 변혁(T: Transform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이를 흡수하게 된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경우에 이를 적용해 보면,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의 근저에 있는 세계관을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필터링을 할 경우에 기독교세계관과 충돌하지 않는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수용(A)할 수 있을 것이며, 기독교세계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거부(R)하여야 할 것이다. 본질에 있어서 특별하게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혁(T)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A·R·T Process의 가장 쉬운 예의 경우는 ‘일반 AA의 12단계프로그램’의 수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은 치료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영적 각성’(spiritual awakening)이나 ‘종교적 체험’(religious experience)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 절대자(higher power)에 대한 의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AA의 프로그램은 절대자의 경우 단순한 절대자가 아니라 성경의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종교적 체험이나 영적 각성의 경우에도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각성과 체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수용에서 있어서 변혁을 추구한 것이다. 박종삼도 “기독교사회복지프로그램은 출발동기가 복음에서 시작했고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교회이며, 일반사회복지프로그램 전반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것들을 복음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김성철, 2003: 137-138 재인용)고 언급하는데 이는 기독교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도 A·R·T과정을 통한 변혁적 수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A·R·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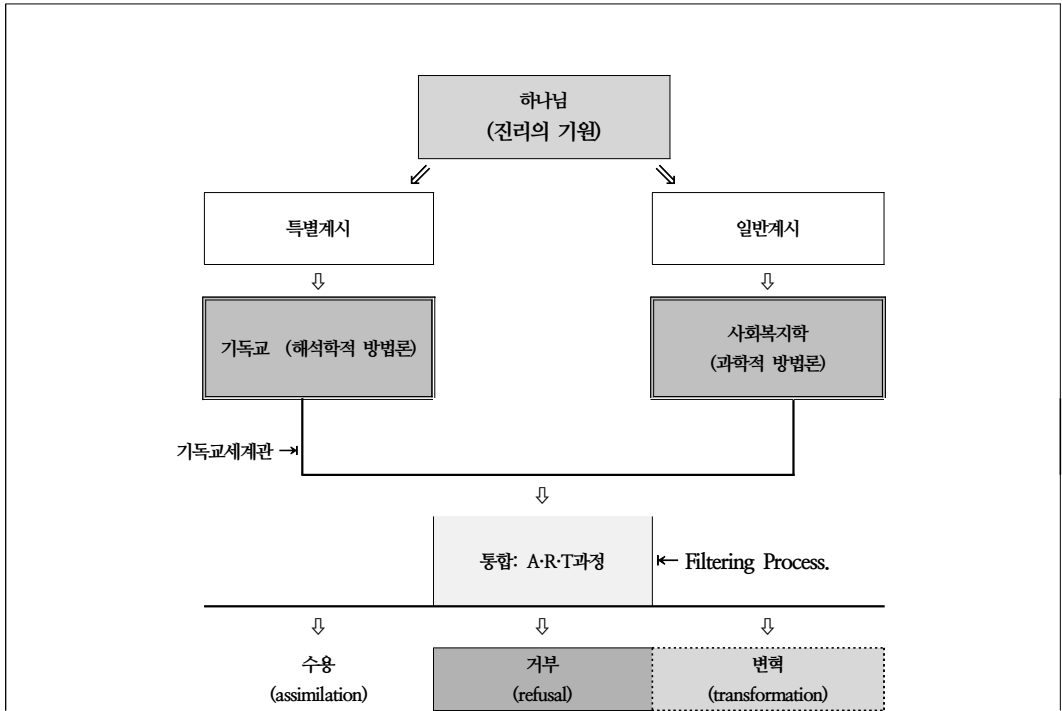


3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모형: IOCAS Model

모든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은 신앙과 학문(과학)의 통합이다.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즉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있어 정확무오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으로 과학적 방법 즉 논리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에 근거한다. 기독교와 사회복지가 통합할 경우에는 기독교세계관을 교량으로 하여 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는 성경이 정확 무오(正確 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을 통해서 A·R·T Process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필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와의 통합을 추구한다.

[그림 4: IOCAS Model]





자료: Meier, Minirth, Ratcliff and Ratcliff, 2004: 34 변형.

## V 나오는 말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관한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논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통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종교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연결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다 완전한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주류 사회복지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위해 영성이나 종교성 같은 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기독교세계관에 부합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왜 필요 하는지에 대해 잘 말해준다 하겠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근거는 먼저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실천적 근거는 역사적으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통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통합은 기독교세계관을 교량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기독교세계관은 통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A·R·T Process의 역할, 즉 필터링(filtering)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총론적 수준에서 통합에 있어서 구조적 통합(Structure Integration, How to Integrate)을 부분적으로 그것도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연구의 한계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기독교연구자들을 통해 차후 연구로 내용 통합(Contents Integration 즉 what to integrate)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에 대한 연구(주류 사회복지학 그 자체도 다학제간 학문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에 비해 기독교사회복지는 더 복잡한 다학제간의 학문적 성격이 요구되어진다는)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통합에 대한 연구들과서와 같이 다양한 학문들 간의 통합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범위(통합의 영역)에 있어서는 광활(廣闊)함이 요구되고 깊이에 있어서는 심원(深遠)함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때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기독교연구자들의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상우 (2012a). “신앙과 학문의 통합: 통합의 가교로서의 기독교세계관.” 『기독교학문의 연구현황과 과제 III』. 기독교학문연구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1-209.
- \_\_\_\_\_. (2012b).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론 관한 소고: 이론적 고찰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1). 7-42.

- \_\_\_\_ (2011a).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모형.” 『신앙과 학문』. 16(1). 7-37.
- \_\_\_\_ (2011b).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A·R·T 과정.” 기독교학문연구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대학원 생분과발표자료.
- \_\_\_\_ (2011c). “기독교사회복지 분광(Spectrum).” 『신앙과 학문』. 16(3). 7-34.
- 강춘근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0(1). 10-49.
- 구인회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경임 (2000). 『현대불교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 김경동 (2007).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철학과 과제』. 서울: 아르케.
- 김광열 (2003).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신학지남』. 통권 제275호. 181-120.
- 김기숙 (2003). 『코메니우스의 인간성 교육론과 기독교 대학』. 서울: 한들출판사.
- 김기원 (2001a).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나눔의집.
- \_\_\_\_ (2001b).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長神論壇』. 9. 197-227.
- 김미숙·홍성표·이만식·유장춘 (1999).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성원 (2002). “인간복지를 향한 존재: 목적론적 윤리론.” 나사렛학술원 편. 『기독교와 인간복지』. 천안: 나사렛대학교출판사. 61-93.
- 김성철 엮음 (2003). 『교회사회복지실천론』.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한국노인복지협의회.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배경·내용 그리고 모델들』. 학지사.
- 김윤태 (2010). “복지담론과 사회투자의 가능성.” 김윤태 엮음.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301-328.
- 김은수 (2002).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선교 실태와 과제.” 『인문과학 논총』. 7. 49-65.
- 김종일 (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노치준 (1999).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흐름과 방향.” 『기독교사회봉사의 현실과 전망』. 숭실대학교기독교 사회연구소. 40-76.
- 문영빈 (2003). “신앙과 학문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문논총』. 10. 137-153.
- 박병현 (2007). 『복지국가의 비교: 영국·미국·스웨덴·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 박영호 (2001).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종삼 (2003). “교회사회사업의 영성적 실천방법.” 제2회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_\_\_\_ (1996). “한국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과 종교사회학.” 『연세사회복지』. 3. 7-24.
- \_\_\_\_ (1987). “인간이해에 있어서 기독교와 심리학.” 『한국기독교연구논총』. 53-58.
- 박종삼·유수현·노혜련·배임호·박태영·허준수·김규수·김인·노혁·손광훈·송성자·이영신·전석균·정무성·정은·조휘일·김교성 (2004).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 성인경 (2001).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손봉호 (1995). 『고통 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정하 (2004). 『사회복지발달사』. 파주: 현학사.
- 오정수 (1991). “성경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원리.” 『통합연구』. 4(2). 141-154.
- 이성재 편저 (2008). 『복지국가혁명』. 서울: 도서출판 밍.
- 이현아 (2003). “영성과 종교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실천.” 『교회사회사업』. 창간호. 183-206.
- 이효선 (200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무열 (2008). 『사회복지의 뿌리를 찾아서-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나눔의집.
- \_\_\_\_ (2004).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개정판. 서울: 나눔의집.
- 현외성 (2006). 『사회복지운동론』. 파주: 집문당.
- 嶋田啓一郎 (n.d.). 『사회복지체제론』. 송정부 외 역 (2000). 서울: 나눔의집. \* 이 책은 일본인 저자가 쓴 논문들을 역자들이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 Brill, N. I. (1985). *Working with People*. 장인협·문인숙 역 (1996). 『社會福祉의 原理와 方法』. 서울: 集文堂.
- Bullis, R. K. (2000). *Spirituality in Social Work Practice*. 장인협 역 (2002).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고양: 사회복지실천연구소.
- Canda, E. R. (Ed.) (1998). *Spirituality in Social Work*. 김용환·김승돈·최금주 공역 (2007).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파주: 양서원.
- Canda, E. R. and L. D. Furman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박승희·이혁구 역 (2003). 『종교 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Doka, K. J. and J. D. Morgan (1993). *Death and Spirituality*. 김재영 역 (2006). 『죽음학의 이해: 죽음 과 영성』. 고양: 인간사랑.
- Dorfman, R. A. (1996). *Clinical Social Work*. 김혜련·이시연·최윤정·권현진 역 (2004). 『임상사회사업』.

서울: 학지사.

Esping-Andersen, G., D. Gallie, A. Hemerijck, and J. Myl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유태균 외 역 (2006).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파주: 나남출판.

Greene, R. R. (Ed.) (2002). *Resiliency*. 양옥경 외 역 (2006). 『사회복지와 탄력성』. 나눔의집.

Lloyd-Jones, D. M. (1987). *Healing and Medicine*. 정득실 역 (2003).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말씀사.

May, G. G. (1991). *Addiction and Grace*. 이지영 역 (2003). 『중독과 은혜』. 서울: IVP.

Meier, P. D., Minirth, F. B. Ratcliff, F. B. and D. E. Ratcliff (2003).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외 역 (2004).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 CLC.

Mouw, R. J. (1989). *Distorted Truth*. 오수미 역 (1999). 『왜곡된 진리』. 서울: CUP.

Ortiz, L. P. (1995). "Sectarian Agencies."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이문국 외 역 (2001). 『사회복지대백과사전(3)』. 나눔의 집. 2414-2423.

Reamer, F. (1999).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고영미 외 역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고양: 사회복지실천연구소.

Sheafor, B. W. and C. R. Horejsi (2003).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6th edition. Boston: Allyn and Bacon.

Snyder, H. A. (1983).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2005). 『참으로 해방된 교회』. IVP.

Spencer, K. (1993). *Without Sin*. New York: Allen Lane.